

**The Gospel of Mark**

Sermon 65

Title: “The first Lord's supper”

Scripture: Mark 14:22-26

Date preached: December 3<sup>rd</sup> 2023**Scripture: Mark 14:22-26**

**22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23 Then He took the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24 And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which is shed for many. 25 Assuredly, I say to you, I will no longer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in the kingdom of God.”**

**26 And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22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23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자 모두 그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26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and learn about the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let's review some of the things we spoke about last time.

We began by speaking about a very significant event that took place on the Wednesday of Passion Week. We have seen over the past few weeks how the Jewish leaders had tried without success to trap Jesus. These wicked men were not interested in discovering the truth. Rather, their concern rested only in stopping Jesus. To them He represented a dangerous threat, a rabble-rouser destined to destabilise the status quo. Therefore He must be silenced using whatever means were necessary.

They had been unable to trap the Lord Jesus with tricky questions. And so at this point they had withdrawn and were scheming together. Whatever they planned for Jesus had to wait. The time of Passover was one of great societal upheaval and change. A time in which tensions were high and political and religious zeal reached fever pitch. They feared therefore that a move against Jesus at this time might incite a riot. However the Jewish leaders were to receive a surprise visit which changed everything.

Judas Iscariot decided at this same time that he was going to betray the Lord Jesus.

As I said last time his actions raise lots of interesting questions. For example, if Judas was doing what God wanted or willed did he still maintain his own free will? Is his actions were what God ultimately wanted did he deserve to be punished? Or if Judas was doing only what had been prophesied he would do again did he really have free will. Tricky questions indeed. Luke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tell us that Satan “entered” Judas (Luke 22:3). So again we might ask if Judas was possessed and controlled by a powerful external force did he still have a free choice?

The bible is a little ambiguous. We never learn the exact details of why Judas decided to do what he

did. However what we can say with certainty is as follows.

Firstly, God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This means that Satan cannot move or take action without God ordaining said action. Remember that permitting something to happen is very different from being the cause. This means that what happened was not an accident or something unplanned or unforeseen.

Secondly God is not tempted by evil and neither does he tempt anyone else.

**Let no one say when he is tempted, “I am tempted by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Himself tempt anyone. (James 1:13)**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such as is common to man; but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also make the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bear it. (1 Cor 10:13)**

This means that Judas could not have argued in his defence that God tempted him to into betraying Jesus.

Thirdly God has given human beings the gift of free will. This means we are able to make our own choices. We can either give into temptation and thus fall into sin, or else to resist and flee from the temptation. Listen to what James tells us.

**14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he is drawn away by his own desires and enticed. (James 1:14)**

This verse clearly indicates that Judas' actions were motivated by his own internal drives or motivations. He did possess free will which means he could have acted in a different way. The truth is that he acted consistently with his debased moral character. Despite having been with Jesu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e was not living a morally good life. He had already succumbed to temptation and made the choice to sin as he stole from the disciples money bag.

Fourthly when the Lord Jesus revealed that one of the disciples would betray Him Judas still had a choice. Since Jesus had not named him he could even at this stage made the decision to turn from that course of action. He made a free will choice not to.

Far greater minds than mine have wrestled with this issue and have not been able to give a satisfactory or complete answer. Perhaps we will just have to agree with the assessment of the academic J Gresham Machen that this is a subject that remains insoluble.

So Judas made his choice to betray Jesus. Leaving the group he went to the high priests to negotiate. What would they give him to betray the Lord Jesus?

They offered him 30 pieces of silver for his act of treachery. Content with this offer Judas returns and waits for an opportune moment.

We also looked last time at the Lord's preparations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This very important annual feast took place within the walled city of Jerusalem.

The Lord Jesus it seems had made some prior arrangements concerning where He would celebrate. He sends Peter and John to go and get things ready. Their instructions are precise which adds weight to the idea that this is prearranged. They are to look for a man carrying a pitcher of water and follow him. As I said last time this would have been an unusual sight. Carrying pitchers of water was usually a woman's job. When they find this man they are to follow him to the place where they will celebrate. The man leads them to an upper room that has been set up and prepared.

Later in the evening Jesus and the disciples join them in the upper room. It is during the Passover meal that the Lord Jesus breaks the shocking news that one of them will betray Him. None of the disciples want to believe He is talking about them. They each ask in turn if they will be the one. Jesus tells them that it is one of them sitting and eating with Him at this table. The section ends with Jesus confirming that things will play out exactly as they had been prophesied. This however will not spare this treacherous individual. His punishment will be severe, it would Jesus tells us be better that His betrayer had never been born.

This was where we concluded last time. Today we will look at the institution of the Lord Supper. Before we do that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성찬의 제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 수요일에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막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위험한 위협, 현상 유지를 불안정하게 만들 폭도 선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그분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질문으로 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들은 한발 물러나서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은 잠시 미뤄져야 했습니다. 유월절 기간은 사회적으로 큰 격변과 변화의 때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정치적, 종교적 열성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때에 예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바꿀 깜짝 방문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때에 주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의 행동은 많은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하느님께서 원하시거나 뜻하신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자유 의지를 행사했습니까?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었다면 그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또는 유다가 예언된 대로 행동했고 그는 다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게는 정말로 자유 의지가 있었습니까? 참으로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누가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한 유일한 복음서 작가입니다(누가복음 22:3). 그렇다면 유다가 강력한 외부 힘에 사로잡혀 통제를 받았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자유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왜 그런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행동이 아니라면 사탄이 결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과 그 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계획 또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유혹하여 예수를 배반하게 했다는 논리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빠져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저항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말을 들어보세요.

#### 14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14)

이 구절은 유다의 행동이 자신의 내적 욕구나 동기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타락한 도덕적 성격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꽤 오랫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유혹에 넘어가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훔치면서 죄를 선택했습니다.

넷째, 주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밝혔을 때 유다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 행동을 반복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이 문제와 씨름했지만 만족스럽거나 완전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주제라는 학자 J Gresham Machen의 평가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룹을 떠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협상했습니다. 주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들은 그의 반역적인 죄의 대가로 은화 30 닢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만족한 유다는 돌아와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주님의 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연례 절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열렸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할 장소에 관해 미리 몇 가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지시가 정확하여 이것이 미리 마련되었다는 생각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들은 물병을 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것은 특이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물병을 나르는 것은 대개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면 기념할 장소로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미리 마련해 놓은 다락방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저녁 늦게 예수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주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그분이 그들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그 사람이 될 것인지 차례로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과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

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배반자가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형벌은 가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배반자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끝마친 곳이 여기였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만찬 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Introduction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very first Lord's Supper. Depending on your church tradition you may know this event as the "Lord's table," the "Eucharist" (which means giving thanks), "Holy Communion," the "Lord's supper," the "breaking of bread" or the "cup of blessing." It is a highly symbolic and special event in both the life of the church and in the life of the believer.

As protestants, we hold it to be one of the two ordinances instituted for the church. When I say **ordinance** here I am referring to a rite, tradition or ritual that has been commanded by God for us to follow. Observing these ritual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our life of worship. Ordinances are useful because they serve as visual or physical aids that remind of the important truths of our faith. For example each month when we celebrate the Lord's Supper together we are reminded of the central core of our beliefs. We remember the sacrifice that Jesus made for sinners like us. We are joyful because we are now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and death because of His sacrifice. It also reminds us of the need to look forward to His imminent return.

The Roman Catholic church holds to seven ordinances, or as they term them **sacraments**. Catholic's teach that the sacraments are a means of obtaining God's grace or blessing. Or more simply that when you participate in these rituals you are earning God's merit points which contribute to your salvation (**they are therefore necessary for salvation**). This is an unbiblical idea and just one of many areas in which the Roman Catholic church is wrong. Protestants do not believe that observing these ordinances is a direct means of receiving grace. We believe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earn salvation. Rather, we do them because we are obedient to God and because they convey important faith affirming truths.

How do we know that there are only supposed to be only two ordinances and not seven?

Well, ordinances are determined by three factors. Unless all three are in place we reject the claim that the ritual or tradition is an ordinance.

- 1) They were instituted by the Lord Jesus Christ.
- 2) They were explicitly taught by the apostles.
- 3) They were observed or practised by the early church.

When we apply these criteria we find that the Lord's supper and believer's baptism are the only two that meet all three determining factors. That is why we observe just these two.

Let us turn now briefly to consider the four main views that have been held, and continue to be held regarding the Lord's Supper. To be precise the issue regards how exactly Christ is present when we partake of the Holy Communion. This is a very controversial topic and debates over it have caused numerous rifts between denominations over the centuries. I cannot really do the subject justice in the short time I have here so please accept that I am going to only give you a very brief overview.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의 만찬 Lord's Supper 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이 행사를 "주의 식탁 Lord's table", "성체성사 Eucharist"(감사를 의미함), "성만찬 Holy Communion", "주의 만찬 Lord's supper", "빵을 떼는 것 breaking of bread" 또는 "성찬의 잔 cup of blessing"

으로 부릅니다. 이는 교회의 삶과 신자의 삶 모두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특별한 의식입니다.

개신교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이 교회를 위해 제정된 두 가지 규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규례 ordinance**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르도록 명하신 의례, 전통, 의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예배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은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주는 시각적,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중심 핵심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는 또한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일곱 가지 의식, 즉 **성례전 sacraments(聖事)**을 지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축복을 얻는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한 의식에 참여할 때 구원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공로 점수를 얻게 됩니다(**그러므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의식을 지키는 것이 은혜를 받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확증하는 중요한 믿음을 전달하는 이유 때문에 그 규례를 지킵니다.

일곱 개의 규례가 아니라 오직 두 개의 규례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식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의식이나 전통이 규례라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 2) 사도들이 명시적으로 가르쳤다.
- 3) 초대교회에서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성만찬과 신자의 세례가 세 가지 결정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만을 준수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에 관해 지금까지 주장되어 왔고 현재도 주장되고 있는 네 가지 주요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란이 많은 주제이며 이에 대한 논쟁은 수세기에 걸쳐 교단 간에 수많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주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매우 간략한 개요만 제공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are the four main view?

네 가지 주요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 **Transubstantiation**

This is the traditional view held by the Roman Catholic church. If you were to attend a Roman Catholic mass this is what you would be told is taking place. They maintain that the elements (bread and wine) literally become th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Each time the elements of the Lord's Supper are consecrated by a priest, a literal metaphysical change takes place. Holding their hands over the bread the priest will recite the "magic formula" *Hoc est enim corpus meum*, "For this is My Body." At this point they are literally transformed. In holding this view they would claim that they are taking the words of Christ in the Gospels literally.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당신이 로마 카톨릭 미사에 참석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요소(빵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의 만찬의 요소들이 사제에 의해 봉헌될 때마다 문자 그대로의 형이상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빵 위에 손을 얹은 채 사제는 “마법의 공식” *Hoc est enim corpus meum*, “이것은 내 몸이니라”를 낭송합니다. 이 시점에서 빵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형됩니다. 이 견해를 고수하면서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Consubstantiation**

This is the view taken by the reformer Martin Luther and still held today by Lutherans, some Eastern Orthodox and a few Episcopal churches. It derives from “*con*” meaning “together,” and “*substantiation*” meaning “substance.” Luther argued that the bread and the wine do not actually become the body and the blood of Christ, but the physical body of Christ is actually present in, with, and under the bread and wine. They remain physically bread and wine but spiritually they become Christ. While Luther saw great distinction between his view and the Roman Catholic view, to the modern person, they appear similar.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취한 견해이며 오늘날에도 루터교, 일부 동방정교회, 몇몇 성공회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는 '함께'를 의미하는 '*con*'과 '실질'을 의미하는 '*substantiation*'에서 파생됩니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임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빵과 포도주로 남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루터는 자신의 견해와 로마 카톨릭의 견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인에게는 그 둘이 유사해 보입니다.

### **The Covenantal view**

This was the stance taken by the reformer John Calvin. Today it is the position held by Reformers, Presbyterians, some baptists and many protestants. His take on the Lord's Supper has become known as the *spiritual presence view*. He strongly objected with the Roman Catholic view and also did not agree with Luther's view. He argued that the elements do not change or become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in any way. In fact the elements are merely symbols of His body and blood. Calvin's spiritual presence view argues that Christ is present at the Lord's Supper but not in a physical sense. For Calvin our focus should be upon His presence within the worshipping body and not upon the elements of the table. The Lord Jesus is present Calvin said in a spiritual sense as we partake of the Lord's Supper through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이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취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과, 장로교, 일부 침례교, 많은 개신교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관한 존 칼빈의 이 견해는 *영적 임재론 spiritual presence view* 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루터의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요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몸과 피가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 요소들은 단지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영적 임재론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시지만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임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의 초점은 성찬의 요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몸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에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주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 **The Memorial view**

Another early reformer, Ulrich Zwingli, is regarded as the author of this view. Today this is the view held by some baptists and many other denominations. Zwingli, like Calvin, believed that the physical body of Jesus was in no way present in the elements of the Lord's Supper. However, his view was different from Calvin's. He saw the Lord's Supper as a commemoration (memorial) of

Christ's death. It is celebrated by the believer as an act of "remembrance" of Christ's death and his sacrifice. This view emphasizes that the Lord's Supper is a devotional act on the part of the believer. Memorialists rightly hold that the bread and wine of the Lord's Supper are important symbols of Jesus' broken body and His blood poured out to atone for mankind's sin. But the elements of communion themselves have no literal or mystical connection to Jesus' body.

또 다른 초기 종교 개혁가인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가 이 견해의 저자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일부 침례교와 다른 많은 교단이 취하는 견해입니다. 칼빈과 마찬가지로 츠빙글리도 주의 만찬의 요소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칼빈의 견해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기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하는 행위로서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이 견해는 주의 만찬이 신자가 헌신하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기념주의자들은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부러진 몸과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성찬의 요소 (빵과 포도주) 자체는 예수님의 몸과 문자적인 또는 어떤 신비로운 연관성이 없습니다.

## **Conclusion**

So what are we to make of all this? Which view best represents the biblical position? In what sense is Christ present in the Lord's Supper? Let us automatically reject the Roman Catholic view. Equally, the Lutheran view is also problematic. This leaves us with the covenantal and the memorial view. Both of these have some merit. However to consider it simply as a memorial is I believe inadequate. It's much more than just a moment for us to remember or memorialise what Jesus did, though this is important too. Clearly something deeper or more spiritual is going on. As followers of Christ we understand that this is a solemn and special ritual given to us by Jesus Himself. So I believe that when we gather around the communion table Christ's Spirit is present with us. So it's really an amalgam of these two views. Neither is quite correct, but when they are combined we get something closer to the reality. This is how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nswers the question; What is the Lord's Supper? (WLC 168)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of the New Test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the appointment of Jesus Christ, his death is showed forth; and they that worthily communicate feed upon his body and blood,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have their union and communion with him confirmed; testify and renew their thankfulness, and engagement to God, and their mutual love and fellowship each with other, as members of the same mystical body.*

That's pretty good. Those Westminster divines nailed it! The reality is that when we eat and drink the Lord's Supper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Christ's Spirit is present, too. Which means that the risen Lord Jesus Himself truly meets us when we come to His table. It should be seen therefore as a sacred moment for us to derive real spiritual nourishment whilst we remember what Jesus did for us and look forward to His return.

Now let's get to today's passage.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적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에 임재하십니까?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자동적으로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루터교의 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적 관점 Covenantal view 과 기념적 관점 Memorial view 두 가지만 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은 그 순간에 단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뭔가 더 깊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엄숙하고 특별한 의식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성찬상에 모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이 두 가지 견해의 혼합체입니다. 어느 쪽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결합하면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만찬이란 무엇인가? (WLC 168)

*주의 만찬은 신약의 성례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합당하게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몸과 피를 먹으며 그들의 영적 자양분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과의 연합과 친교를 확증한다.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를 간증하고 새롭게 한다.*

훌륭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올 때 참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동안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양분을 얻는 신성한 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The passage that we are considering today is one that is very familiar to believers. All three synoptic gospels contain accounts of this first Lord's Supper. So I'm sure that you have all read or heard these words numerous times. They also form the central core of the communion worship service. I say them before we partake of the bread and wine. There is a danger then, due in part to their familiarity that we might become numbed to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what is being revealed. So I will try to bring something fresh and possibly new to you as we look today at the Lord Jesus instituting the Lord's Supper.

We pick up the story with the Lord Jesus and the disciples sitting around the table. They are sharing the Passover meal. Today it's known by Jews as the Seder. The modern, elaborate Seder meal only came into existence after 70 AD, so the meal Jesus and the disciples celebrated would have been a little different. As I explained to you last time this was a highly structured and symbolic meal. Everything consumed had a deep symbolic meaning. The bitter herbs recalled the bitterness of slavery; the salt water remembered the tears shed under Egypt's oppression. The main course of the meal, a freshly sacrificed lamb was not connected to the agonies of Egypt. It symbolized the sin-bearing sacrifice that allowed the judgment of God to pass over the household that believed. It is this special symbolism that makes this feast much more than just a shared family meal.

Today when we invite guests to dinner we invite them to eat and drink as they wish. We may order the food we serve in a particular way; a starter, a main course, dessert followed by coffee. But each course does not have a particular significance and people are free to miss a particular course if they wish. We top up someone's wine glass when it becomes empty, and if someone wants a second helping we accommodate them. This was not the case for the Passover meal. It followed a set pattern or procedure and everyone was required to fully participate in each stage.

**22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라.**

##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신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세 개의 공관복음 모두 이 첫 번째 주의 만찬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글을 여러 번 읽고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찬 예배의 중심 핵심을 형성합니다.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저는 이 구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친숙함으로 인해 이 말씀의 의미와 중요성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신선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Seder 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정교한 seder 식사는 서기 70 년 이후에야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와 제자들이 기념했던 식사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매우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식사였습니다. 먹는 모든 것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쓴 나물은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연상시켰습니다. 바닷물은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흘린 눈물로 기억했습니다. 식사의 메인 코스인 갓 희생된 양은 애굽의 고통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담당하는 희생양으로 믿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고 넘어감을 상징했습니다. 이 식사를 단순한 가족 식사 이상의 의미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한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타터, 메인 코스, 디저트, 커피가 차례로 나옵니다. 그러나 각 코스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은 원할 경우 특정 코스를 자유롭게 안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와인 잔이 비었을 때 그것을 채워주고, 누군가가 한번 더 먹고자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해진 패턴이나 절차를 따랐으며 모든 사람이 각 단계에 완전히 참여해야 했습니다.

We have arrived at the fifth stage of the meal. At this stage the father, or head of the family would lift up the large flat disk of unleavened bread, actually it was more like a cracker than a loaf of bread. He would then bless the bread by saying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the following;

*“This is the bread of affliction which our fathers ate in the land of Egypt. Let everyone who hungers come and eat; let everyone who is needy come and eat the Passover meal.”*

He would then break off a piece of bread for each person present. In this act Jesus looked forward to the time that His body was “broken” in the terrible suffering of the crucifixion. This is why this special event is still today referred to as the “breaking of bread.” After the individual pieces were passed around it was normally eaten in a moment of reflective silence. But not on this occasion. This you see was the institution of something new. The focus of the Passover prior to this had been the suffering of Israel in Egypt. They thought back and remembered how the lamb's blood allowed God to “pass over” and spare them from death. Now, with the new covenant it would be Christ's own blood that cleanses us of our sins. It is Christ's blood that enables God to “pass over” us sparing us from the death we deserve.

What we may wonder did all of this mean to the disciples? They obviously did not take Jesus' words literally. They knew that He did not mean for them to cut bits of His flesh off and consume Him! The early Christians were actually accused by some of being cannibals and eating human flesh. Common sense should tell us that Jesus is speaking metaphorically or symbolically.

Jesus is calling upon His listeners to associate the benefits of physical food; nourishment and life

with the spiritual nourishment that comes from communion or connection with Him. At this time of year (the Passover) every Jew's mind would have gone back to the time in the wilderness. The people cried out for God to provide for their physical needs. God obliged and sent them manna. When God sent manna to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it kept them alive for a time, but eventually they all died. Those who "eat" the bread of life however will never die.

So the bread serves as a reminder of God's amazing gift to us. The gift is of course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Being perfect He bore our sins upon the cross. He took our punishment upon Himself. He shed His blood to pay our debt to God. Because of what He did we can now enjoy freedom from the bondage of sin, and eternal life in His presence. If we are to fully appreciate this gift we must actively take it. It is freely offered to all but forced upon no one. We are called to eat or partake of its goodness. It's no good looking at, or simply observing Christ from afar.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gift he offers we must receive Jesus into ourselves.

Let us continue.

식사의 다섯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버지, 즉 가장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담긴 크고 납작한 원반을 들어올렸는데, 실제로 그것은 빵 한 덩어리라기보다는 크래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빵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먹던 고난의 빵이다. 배고픈 사람은 모두 와서 먹어라. 가난한 사람은 모두 와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

그런 다음 그는 참석한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떼어 줍니다. 이 행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당신의 몸이 “부러지는” 때를 고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별한 사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빵을 떼는 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각 조각을 전달한 후 일반적으로 잠시 생각에 잠긴 채 먹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 유월절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넘어가시게” 하셨는지 회상하고 기억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에서 우리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살을 잘라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일부 사람들로 부터 식인종이며 인육을 먹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듣는 자들에게 실재적인 음식이 주는 유익성과 그분과의 친교나 연합에서 나오는 영적 자양분으로 영양과 생명을 얻는 것을 연관시키길 원하십니다. 연중 이맘때(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의 마음이 광야 생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내셨을 때, 그것이 그들을 한동안 살려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분 앞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온전히 감사하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제공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먹고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단순히 멀리서 관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선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합시다.

**23 Then He took the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We turn now to the cup. This was stage seven of the Passover meal. At this time a third cup of wine was shared following the consumption of the main meal. You will note that I said “wine.” The cup they passed around and drank from was full of wine, though it may well have been diluted with water. This means that the Lord Jesus drank wine. This also means that we too have the liberty to consume wine or other alcoholic beverages with moderation. What the bible condemns is drunkenness not drinking alcohol per se.

After giving thanks or blessing the cup it was passed around and they all drank from it. This fact is significant. Normally each person at the meal had their own cup. But Jesus used just one to represent the unity of the community He was establishing. It's a wonderful thing to think that under Christ all Christians are united as brothers and sisters. Wherever we go in the world when we are with other believers we should feel welcomed and loved as a fellow family member. Let us continue.

**23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자 모두 그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이제 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사 of 일곱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때 메인 식사를 마친 후 세 번째 와인 잔이 나누어졌습니다. 내가 “와인”이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리며 마셨던 잔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는데, 아마도 물로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우리도 와인이나 기타 알코올 음료를 적당히 섭취할 자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나 축복을 드린 후 잔을 돌리고 모두가 그 잔을 마셨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에 참석한 각 사람은 자신의 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공동체의 일치를 나타내기 위해 단 한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동료 가족으로서 환영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합시다.

**24 And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which is shed for many.**

In the Bible, spiritual life is represented by bread (John 6:22–71) and water (John 4:13–14), but blood is the deepest metaphor God uses. This is because the physical life of an animal is in its blood. As we read in Leviticus 17:11,

**For the life of the flesh is in the blood, and I have given it to you upon the altar to make atonement for your souls; for it is the blood *that* makes atonement for the soul.’**

The penalty for sin against a perfectly holy God is death. This was why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period animals had to be sacrificed upon the altar. Blood had to be spent, a life had to be taken. However as the bible tells us the blood of bulls and goats was unable to take away sins

(Hebrews 10:4). This was why the sacrifices had to be made repeatedly. Despite their impermanence as a means of forgiving sins God still required blood to be shed to remind people that sin incurs the death penalty.

During the last of God's ten plagues against Egypt, the Israelites covered their door posts and lintels with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God passed over the homes marked with blood and left them unscathed while the firstborns of the houses of the Egyptians died (Exodus 12:1–32). So the symbolism of blood is very important throughout scripture.

Jesus tells the disciples that this is **His blood of the new covenant**.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covenant” is *diatheke*. It describes an agreement made by one person for others. It is actually a legal term denoting a formal and legally binding declaration of benefits to be given by one party to another, with or without conditions attached. Covenants or contracts have to be sealed or signed in order to become binding. The Lord Jesus viewed His “blood” as the ratifying agent (the seal) of the New Covenant. It was the ancient practice to seal, or agree covenants through the shedding of blood. The people of Israel entered into the covenant with God by bringing a sacrifice and then by having its blood sprinkled on them by Moses.

**And Moses took the blood, sprinkled it on the people, and said, “This is the blood of the covenant which the LORD has made with you according to all these words.” (Exo 24:8)**

But on this occasion the “blood” represented by wine is not to be applied externally. Rather, it is to be ingested. The eating or drinking of blood was especially taboo in Jewish culture. God's prohibition against consuming blood pre-dates the Mosaic law (Genesis 9:4).

So what's going on here? Well Jesus is soon to shed His own blood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No mere man could ever institute a new covenant between God and man, but this is not a problem for Jesus. He is after all the God-man. He has the authority and power to establish a new covenant. So He is announcing that the old practice of animal sacrifice is coming to a close. From now on His sacrifice will forever be sufficient for all who accept it. By drinking the “blood,” it symbolizes that Jesus' healing power goes inside us. It's not something that happens on the outside. We are not whitewashed tombs that only appear to be clean externally (Matthew 23:27). Rather, when we “drink” Christ we are renewed from the inside-out, God gives us new hearts (Ezekiel 11:19).

This new covenant which Jesus brings into existence here means that God would, from this point on save all who believed and put their faith in Jesus. Let us move on.

**24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서 영적인 삶은 빵(요한복음 6:22~71)과 물(요한복음 4:13~14)로 표현되지만 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깊은 은유입니다. 동물의 육체적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 장 11 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 영혼을 속죄하려고 제단 위에 주었노니 영혼을 속죄하는 것은 피이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내내 동물을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던 이유입니다. 피를 흘려야 하고, 생명을 앗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했다고 말합니다(히브리서 10:4). 이것이 바로 희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수단으로서의 무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는 사형이 따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전히 피흘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피 묻은 집들은 넘어가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출애굽기 12:1-32). 그러므로 피의 상징은 성경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당신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테케(diatheke)*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설명합니다. 이는 실제로 조건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할 혜택에 대한 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언을 나타내는 법적 용어입니다. 언약 또는 계약은 구속력을 갖기 위해 봉인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비준 대리(도장)로 보셨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을 체결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 24:8)**

그러나 오늘 본문 경우에 포도주로 대표되는 “피”를 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특히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였습니다(창 9:4).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맺을 수 없지만, 예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사람 God-man 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동물을 희생하는 옛 관행에 종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희생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충분할 것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는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다(마 23:27).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실” 때 우리는 안팎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에스겔 11:19).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25 Assuredly, I say to you, I will no longer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in the kingdom of God.”**

The Lord Jesus here makes a solemn vow. He will not drink wine again until He does so in the “**the kingdom.**” Some of you bible scholars here might object at this point. Didn't Jesus ask for and receive some sour wine on the cross the very next day? (John 19:29-30). So the question we might ask is whether there is something particular about the ‘**fruit of the vine**’ at the last supper that he would not have again until **He has it new in the Kingdom?** The answer I believe is yes. The Greek text is explicit that Jesus was referring to ‘this fruit of the vine’ and ‘this Passover’ (Matthew 26:29; Luke 22:15-16). For this reason we can dismiss the sour wine He drank on the cross.

What Jesus is telling us here is that He has not yet celebrated a Passover in heaven. He is still waiting for all His people to be gathered to Him. When we are all gathered to Him then there will

be a great supper known as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en he said to me, “Write: ‘Blessed *are* those who are call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he true sayings of God.” (Revelation 19:9)**

This is the fulfilment in the kingdom of God Jesus longed for. So even at this moment of great personal anguish and turmoil He is looking ahead to the wonderful time of communion and feasting we all anticipate in the future. Let us conclude our study now with verse 26.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엄숙한 맹세를 하십니다. 그분은 “**왕국**”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 일부는 이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달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요한복음 19:29-30)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최후의 만찬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에 **그분이 왕국에서 새로운 것을 가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특별한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믿는 대답은 '예'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예수께서 '의 포도나무 열매'와 '의 유월절'을 언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마태복음 26:29; 누가복음 22:15-16).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신 신 포도주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아직 천국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분의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께 모일 때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알려진 큰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나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계시록 19:9)**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뇌와 혼란이 있는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미래에 기대하는 놀라운 친교와 잔치의 시간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제 26 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6 And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It was customary to conclude the Passover by singing the Psalms from 115 to 118. Following this Jesus and the disciples went out of the city, across the Kidron Valley, and onto the slopes of the Mount of Olives to spend the night. They did not return to Bethany because for Passover they needed to stay within the boundaries of Jerusalem. The Mount of Olives fell within the limits of greater Jerusalem.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read about Peter's denial and the time in Gethsemane.

**26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

시편 115 편부터 118 편까지를 노래하며 유월절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와 제자들은 성에서 나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밤을 보내기 위해 감람산의 비탈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경계 안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베다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감람산은 더 큰 예루살렘의 경계 내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부인과 겐세마네에서의 시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one comment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1 Really appreciating What Jesus did for us**

As I said during the sermon sometimes familiarity with things can numb us to their true value or significance. This can certainly be true when it comes to acts or rituals of worship. When we practice them frequently we can at times lose sight of their importance. Saying grace before eating a meal can fall into this category. The food looks good, we're hungry, so we hastily say a few trite words of thanks. Saying grace before eating is a recognition that God has provided for all our daily needs. It's not something to be done in a trivial flippant manner.

It can also be true as regards the Lord's supper. We don't always I think take it as seriously as we should. We come up to the communion table looking solemn, eat the elements and then leave and go home. So let us take a moment to really think about what we are doing. When we consume the bread and wine what should we be thinking?

We should be reflecting on how our precious Lord willingly gave His body to be broken on the cross for us. When we drink the cup we should be recalling the precious blood He spilled for us.

Just think on that for a moment. How good and worthy are you? Are you worth someone risking serious injury on your behalf? Possibly, you are. Maybe someone would deem you worth enduring pain or going through some form of suffering. Or what about this, are you so good and worthy that someone would sacrifice their life for you? If you are a husband here I hope you'd do that for your wives. But aside from that I don't think so. None of us are that good. It's unlikely a complete stranger would sacrifice themselves for us. And yet this is what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the God-man did for us. It's not even as if we could claim to be good or even okay people. We were thoroughly evil and wicked. But Christ went to the cross for us.

So when we celebrate the Lord's Supper Christ our saviour is present with us. We are enjoying a moment of communion and intimacy with Him. We are also solemnly remembering what He did, but there's more to it than that. We are also looking ahead. To the future time when He will gather us to Him, and we will enjoy a time of eternal unbroken fellowship. So let us never again come to the communion table without fully appreciating all that it represents.

제가 설교 중에 말했듯이 때때로 무언가에 대한 친숙함은 우리를 그것의 진정한 가치나 중요성에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 행위나 의식에 있어서도 확실히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주 행하다 보면 때때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데 배가 고파서 서둘러 몇 마디 진부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셨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경솔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에 관해서도 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 합니다. 우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성찬상에 와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귀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잔을 마실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고귀한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고통을 견디거나 어떤 형태의 고통을 겪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당신은 너무 선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낮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사람 God-man 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악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와 친밀함의 순간을 즐깁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엄숙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모으시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교제의 시간을 누리게 될 미래의 시간을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성찬상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찬상에 나아가지 맙시다.



